

아동성폭력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공배완*

요 약

아동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신체적 저항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갈수록 잔인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도 없는 실정이다.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또는 관망자적 자세가 성범죄의 확산을 가져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항목별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성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학교근처(31.9%)가 가장 많았고, 아동성범죄의 발생이유에 대해서는 예방장치의 부재를 꼽았다(32.2%). 효과적인 예방책으로서 부모의 관찰 및 예방교육을 꼽았으며(35.7%), 예방장치로서는 부모의 자녀동반 등하교(58.1%)가 1순위로 나타났다. 제도적인 적합한 예방장치로서는 민간경비의 활용(37.5%)이 가장 많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동지킴이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47.9%).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된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교육을 통한 예방보다는 물리적 안전장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 Survey Research on the Effective Prevention Program of Child Sexual Abuse

Gong Bae Wan*

ABSTRACT

The child sexual abuse is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children are to seek the physical ability for protecting the mselves from crime. However there is no effective prevention program for that. The reason why the lack of underst anding of society and the people's attitude as a fence sitter provoke in a roundabout way to the child sexual abuse. Thus this these conducted a survey research about the child sexual abuse for the common citizen. The questionnaire s were analyzed and composed of a frequency analysis and a cross-tabulations by using the tool SPSSWIN. The res ult was that the crime for child was often occurred nearby school and any effective prevention system.

Key words :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crime, children, criminal

접수일(2011년 09월 27일), 수정일(1차: 2011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2011년 10월 17일)

★ 이 연구결과물은 2011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Kyungnam University, 2011).

*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의 범죄는 날로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아동성범죄 문제는 잔인성과 확산성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신체적 물리력과 저항력이 미약하고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한 사리분별과 판단력이 불분명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주로 성인남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아동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점이다. 최근 ‘스쿨 폴리스’ 제도나 ‘학교 보안관’ 제도가 실시·운영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단지 학교 울타리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의 전문성 결여와 아동의 심리상태나 행동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보안요원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보안관제도에 따라 보안관이 배치된 학교에 괴한이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추행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여¹⁾ 보안관제도의 허점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1.2 연구방법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심각성, 그리고 적절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아동을 자녀로 둔 일반시민을 통해 방법을 찾기 위함이다.

설문조사는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경남과 창원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총 250부를 배포하였고, 그 중 212부가 회수되었으며 통계작성에 부적합한 설문내용을 제외한 192부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아동성폭력 예방에 대한 조사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WIN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각 개별 문항의 빈도를 살펴보았으며, 교차

분석을 통해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K²)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반면,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카이제곱(K²)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들만을 제시하였다. 즉, 통계학적으로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문항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

2.1 표본특성

표본의 특성을 보면, 남자가 61.5%로 여자보다 많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2.5%로 가장 많은 반면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아서 60대는 6.8%로 가장 낮다. 기혼과 미혼의 결혼여부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학생의 응답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별로는 통합창원시 거주자가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표본특성

요 인		표 본	
		명	%
성 별	남 자	118	61.5
	여 자	74	38.5
연 령	20대	62	32.5
	30대	43	22.5
	40대	37	19.4
	50대	36	18.8
	60대이상	14	6.8
결 혼 여 부	기혼	98	50.5
	미혼	94	49.5
직 업	학생	65	34.2
	주부	25	12.1
	회사원	35	18.4
	자영업	30	15.8
	공무원	11	5.8
	전문직	9	4.7
	농업	-	-
	취업준비	4	2.1
거 주 지	기타 경남지역	13	6.8
	통합창원시	123	67.7
	경남외 지역	49	25.9

1) 서울경제, 2011.03.11.

2.2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

2.2.1 아동성범죄의 심각성

아동성범죄에 대해 사람들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아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33.9%였다.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응답을 보인다.

<표 2> 아동성범죄의 심각성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	106 (55.2)	65 (33.9)	16 (8.3)	3 (1.6)	2 (1.0)

2.2.2 아동성범죄의 발생이유 및 발생책임

아동성범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예방장치의 부재(32.2%)를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범죄자의 정신질환(25%), 아동의 방치(21.9%) 등을 들었다. 따라서 아동성범죄의 책임을 사회(68.2%)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예방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성범죄의 발생이유 및 발생책임 등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표 3> 아동성범죄 발생이유 및 발생책임
단위: 명(%)

문항	부모의 무관심	아동의 방치	예방 장치 부재	예방 교육 없음	범죄자 정신 질환
발생 이유	20 (10.4)	42 (21.9)	62 (32.3)	20 (10.4)	48 (25.0)
문항	아동 자신	부모	학교	경찰	사회
발생의 책임	4 (2.1)	34 (17.7)	11 (5.7)	12 (6.3)	131 (68.2)

2.2.3 아동성범죄 예방에 대한 인지

아동성범죄의 예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의 합이 57.7%로 모르는 경우보다 높았다. 그러나 모르는 경우도 합이 42.3%로서 높게 나타나 아동성범죄 예방법에 대해 사람들이 알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아동성범죄 예방에 대한 인지수준
단위: 명(%)

문항	잘알고있 음	대충알고 있음	잘모름	전혀 모름
예방법 인지	31(16.1)	80(41.6)	65(34.0)	16(8.3)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아동성범죄의 예방법에 대한 인지 차이여부를 살펴보면, 연령별·직업별·거주지별로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잘 모른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30대·40대·50대·60대들은 “대충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 회사원의 경우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44.6%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주부·자영업자·취업준비·기타의 직업군은 “대충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은 “잘 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통합 창원시·기타경남지역·경남의 지역 모두에서 “대충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그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2.4 아동성범죄 예방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아동성범죄의 예방책으로는 부모의 관찰, 예방교육, 예방장치, 어린이 놀이터 개선, 전과자 재교육 등을 들 수 있다. 1순위에 한정하여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부모의 관찰을 아동성범죄를 예방하는 예방책으로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중치를 부여한 종합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방장치와 예방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부모의 관찰을 중요하게 들고 있다.

<표 5> 아동성범죄 예방책의 중요도
단위: 명(%)

예방책으로서 중요도	부모의 관찰	예방교육	예방장치	어린이 놀이터 개선	친과자재교육
1순위	65 (35.7)	51 (28.2)	49 (26.6)	5(2.8)	21 (11.7)
2순위	36 (18.8)	59 (32.6)	43 (23.4)	17(9.5)	25 (13.9)
3순위	28 (15.4)	28 (15.5)	53 (28.8)	34 (19.0)	35 (19.5)
4순위	31 (17.0)	27 (14.9)	33 (17.9)	42 (23.5)	44 (24.4)
5순위	22 (12.1)	16(8.8)	6(3.3)	81 (45.3)	55 (30.6)
총합점수	127.40	129.00	129.60	72.00	90.60

*총합 점수는 가중치 부여함. 1순위는 1점, 2순위는 0.8점, 3순위는 0.6점, 4순위는 0.4점, 5순위는 0.2점을 부여함.

3. 아동성범죄 예방장치

3.1 부모의 관찰

아동성범죄 예방장치인 부모의 관찰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 그리고 학원에 갈 경우 부모가 자녀와 동반하는 것(58.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항상 친구와 같이 다니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표 6> 부모의 관찰에서 중요한 사항
단위: 명(%)

문항	자녀에게 휴대폰 사주기	등하교, 학원 등자녀동반	하교 후 외출금지	항상 친구와 같이함
부모의 관찰에서 중요한 사항	24 (12.6)	111 (58.1)	10 (5.2)	46 (24.1)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부모의 관찰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차이 여부를 살펴보면, 연령별·결혼여부별로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에서 등·하교나 학원갈 때 자녀와 동반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응답치에서 일부 차이를 보인다. 20대는 자녀에게 휴대폰을 사주는 것을,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는 항상 친구와 같이 있는 것을, 60대는 하교후 외출금지를 선호하였다.

결혼여부별로도 등·하교나 학원갈 때 자녀와 동반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응답치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 응답자 특성별 부모의 관찰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차이
단위: 명(%)

부모관찰중 중요한 것	연령					결혼여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혼	미혼
자녀에게 휴대폰 사줌	14 (22.6)	5 (11.9)	4 (10.8)	1 (2.8)	0 (.0)	7 (7.4)	17 (18.1)
등하교, 학원자녀동반	38 (61.3)	24 (57.1)	15 (40.5)	25 (69.4)	8 (61.5)	54 (56.8)	55 (58.5)
하교후 외출금지	1 (1.6)	0 (.0)	4 (10.8)	2 (5.6)	3 (23.1)	7 (7.4)	3 (3.2)
항상 친구와 같이	9 (14.5)	13 (31.0)	14 (37.8)	8 (22.2)	2 (15.4)	27 (28.4)	19 (20.2)
카이제곱검증	32.591***					7.162*	

*p<0.1 **p<0.05 ***p<0.01

3.2 아동성범죄 예방 장치로서 예방교육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으로 학교에서의 예방교육(46.1%)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에서의 예방교육, 경찰기관에서의 예방교육, 민간단체에서의 예방교육 등의 순이었다.

<표 8> 적합한 예방교육
단위: 명(%)

문항	학교에서의 예방교육	가정에서의 예방교육	경찰기관에서의 예방교육	민간단체에서의 예방교육
예방교육으로 적합한 것	88 (46.1)	56 (29.3)	39 (20.4)	8 (4.2)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아동대상 적합한 예방교육에 대한 차이 여부를 살펴 보면, 성별로만 차이를 보인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학교예방교육을 가장 많이 선호하지만, 여자가 56.8%로 더욱 선호하는 편이다. 그에 반해 경찰기관에 의한 예방교육은 남자가 26.5%로 여자의 10.8%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

<표 9> 응답자 특성별 아동대상 적합한 예방교육 차이

단위: 명(%)

아동대상 적합한 예방교육	성별	
	남	여
학교 예방교육	46(39.3)	42(56.8)
가정 예방교육	33(28.2)	23(31.1)
경찰기관서 예방교육	31(26.5)	8(10.8)
민간단체서 예방교육	7(6.0)	1(1.4)
카이제곱검증	10.904**	

*p< 0.1 **p< 0.05 ***p< 0.01

3.3 아동성범죄 예방장치로서 적합성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서 민간경비를 활용한 순찰(37.5%)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쿨존의 관리철저를 들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를 활용한 순찰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0> 적합한 성범죄 예방장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문항	등하교길 경찰관 배치	스쿨존 관리 철저	민간경비의 활용 순찰	부모가 항상 동행
성범죄 예방장치로 적합한 것	38 (19.8)	57 (29.7)	72 (37.5)	25 (13.0)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적합한 성범죄 예방장치에 대한 차이 여부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만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40대 등은 모두 민간기

관 정기순찰을 가장 선호하지만, 60대는 등하교길 경찰관배치를 가장 선호한다. 그에 반해 50대는 스쿨존 관리 철저와 민간기관 정기순찰 두 가지가 높게 나타났다.

<표 11> 응답자 특성별 적합한 성범죄 예방장치
단위: 명(%)

적합한 예방장치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등하교길 경찰관배치	10 (16.1)	10 (23.3)	3 (8.1)	9 (25.0)	6 (46.2)
스쿨존 관리철저	22 (35.5)	11 (25.6)	12 (32.4)	11 (30.6)	1 (7.7)
민간기관 정기순찰	25 (40.3)	16 (37.2)	18 (48.6)	11 (30.6)	1 (7.7)
부모 항상동행	5 (8.1)	6 (14.0)	4 (10.8)	5 (13.9)	5 (38.5)
카이제곱검증	24.115**				

*p< 0.1 **p< 0.05 ***p< 0.01

3.4 놀이터 등의 개선사항

놀이터의 개선사항으로 CCTV설치(46.1%)를 가장 우선적으로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리인 배치(27.7%)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응답을 보인다.

<표 12> 놀이터 등의 개선사항
단위: 명(%)

문항	관리인 배치	출입제한	CCTV 설치	조명등의 환경개선
놀이터 등의 개선사항	53 (27.7)	17 (8.9)	88 (46.1)	33 (17.3)

3.5 전과자 대상 교육

전과자 대상 교육의 효과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느정도 있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표 13> 전과자 대상 교육효과
단위: 명(%)

문항	매우 큼	어느 정도 있음	보통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전과자 대상 교육의 효과	19 (9.9)	52 (27.1)	62 (32.3)	44 (22.9)	15 (7.8)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전과자 대상 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만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30대·40대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50대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27.8%로 동일하게 나타나며, 60대는 “효과가 미미하다”와 “전혀 없다”는 응답이 모두 30.8%로 가장 높았다.

<표 14> 응답자 특성별 전과자 대상 교육효과
단위: 명(%)

전과자대상 교육효과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큰효과있음	5 (8.1)	5 (11.6)	1 (2.7)	8 (22.2)	0 (.0)
어느정도효과	12 (19.4)	13 (30.2)	15 (40.5)	10 (27.8)	2 (15.4)
효과미미	27 (43.5)	12 (27.9)	9 (24.3)	10 (27.8)	4 (30.8)
별효과없음	14 (22.6)	10 (23.3)	9 (24.3)	7 (19.4)	3 (23.1)
전혀없음	4 (6.5)	3 (7.0)	3 (8.1)	1 (2.8)	4 (30.8)
카이제곱검증	27.601**				

*p<0.1 **p<0.05 ***p<0.01

3.6 아동지킴이 제도에 대한 인지

아동안내지킴이 제도는 학교주변의 인근 약국이나 문구점 등을 위급상황 시 아동이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아동지킴이 제도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에 따르면, “잘 모른다”는 응답이 47.9%,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3%로 60.9%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아동지킴이 제도에 대한 인지
단위: 명(%)

문항	아주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름	전혀 모름
아동지킴이 제도에 대한 인지	24 (12.5)	51 (26.6)	92 (47.9)	25 (13.0)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아동지킴이 제도에 대한 인지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별·거주지별로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30대·40대·50대 등은 모두 아동지킴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60대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통합창원시와 경남의 지역에 거주자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기타 경남지역 거주자들은 “대충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16> 응답자 특성별 아동지킴이 제도에 대한 인지
단위: 명(%)

아동지킴이제도인지여부	연령					거주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통합창원시	기타경남지역	경남외지역
잘 앎	7(1.3)	6(1.4)	6(1.6)	3(8.3)	2(15.4)	18(4.1)	4(8.2)	1(8.3)
대충 앎	16(25.8)	15(34.9)	9(24.3)	10(27.8)	1(7.7)	27(21.1)	22(44.9)	2(16.7)
잘 모름	29(46.8)	20(46.5)	18(48.6)	20(55.6)	4(30.8)	63(49.2)	19(38.8)	8(66.7)
전혀모름	10(16.1)	2(4.7)	4(10.8)	3(8.3)	6(46.2)	20(15.6)	4(8.2)	1(8.3)
카이제곱검증	19.767*					12.626**		

*p<0.1 **p<0.05 ***p<0.01

4. 예방장치의 효과

4.1 아동지킴이 제도의 효과

아동안내지킴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에 따르면, “적다”는 응답이 50%, “전혀없다”는 응답이 15.3%로 부정적인 응답치가 약 65.3%에 달한다. 그에 반해 “있다”는 응답과 “어느 정도 있다”는 응답의 합은 34.7%였다. 이러한 아동지킴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아동안내지킴이 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그 이유로 홍보 부족을 50.6% 가장 많이 들며, 그 다음으로 24.7%가 형식적인 제도임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17> 아동안내지킴이 제도의 효과
단위: 명(%)

문항	매우 있음	어느 정도 있음	적음	전혀없음
아동안내지킴이 제도의 효과	7(4.1)	52(30.6)	85(50.0)	26(15.3)
문항	홍보가 안되어서	이용이 불편하여	실질적 도움이 안됨	형식적인 제도임
아동안내지킴이 제도가 효과가 없는 이유	86(50.6)	10(5.9)	32(18.8)	42(24.7)

4.2 경찰기관

예방장치로서 경찰기관에 대해 대체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에 따르면, 46.9%가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18> 예방장치로서 경찰기관에 대한 신뢰
단위: 명(%)

문항	아주 신뢰	어느 정도 신뢰	거의 신뢰안함	전혀 없음
경찰기관에 대한 신뢰도	16(8.3)	76(39.6)	90(46.9)	10(5.2)

4.3 민간경비 기관 활용

아동성범죄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대안으로 민간경비(기관)을 활용하는데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과 협력시 좋은 방법이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체로 좋은 방법이라는 응답이 33.9%였다.

<표 19> 민간경비(기관)활용에 대한 생각
단위: 명(%)

문항	가장 적절한 방법	대체로 좋은 방법	경찰과 협력시 좋은 방법임	별로 좋지 않음	전혀 좋지 않음
민간경비(기관) 활용에 대한 생각	22(11.5)	65(33.9)	92(47.9)	8(4.2)	5(2.6)

민간경비(기관)활용에 대한 생각은 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로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30대·40대·50대·60대들 모두 “경찰과 협력시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그 비율에서 일부 차이를 보인다.

결혼여부별로 보면, 기혼 및 미혼 모두 “경찰과 협력시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주부·회사원·자영업·공무원·전문직 모두 “경찰과 협력시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취업준비생의 경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다.

<표 20> 응답자 특성별 민간경비(기관)활용에 대한 생각 차이

단위: 명(%)

민간경비활용에 대한 견해	연령					결혼여부		직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혼	미혼	학생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전문직	취업준비	기타
아주 적절	14(22.6)	4(9.3)	2(5.4)	1(2.8)	1(7.7)	5(5.2)	17(18.1)	14(21.5)	3(13.0)	1(2.9)	2(6.7)	2(18.2)	0(.0)	0(.0)	0(.0)
대체로 적절	18(29.0)	18(41.9)	10(27.0)	16(44.4)	3(23.1)	33(34.4)	32(34.0)	18(27.7)	5(21.7)	19(54.3)	10(33.3)	4(36.4)	2(22.2)	2(50.0)	5(38.5)
경과량시 불응	29(46.8)	20(46.5)	20(54.1)	17(47.2)	5(38.5)	49(51.0)	41(43.6)	32(49.2)	11(47.8)	14(40.0)	15(50.0)	5(45.5)	7(77.8)	1(25.0)	5(38.5)
별인용 없음	0(.0)	0(.0)	4(10.8)	2(5.6)	2(15.4)	6(6.3)	2(2.1)	0(.0)	3(13.0)	1(2.9)	2(6.7)	0(.0)	0(.0)	0(.0)	2(15.4)
전혀 인용 없음	1(1.6)	1(2.3)	1(2.7)	0(.0)	2(15.4)	3(3.1)	2(2.1)	1(1.5)	1(4.3)	0(.0)	1(3.3)	0(.0)	0(.0)	1(25.0)	1(7.7)
카이제곱검정	36.078***					9.452*		44.968**							

*p<0.1 **p<0.05 ***p<0.01

4.4 민간경비 기관 활용의 선호와 비선호점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민간경비(기관)의 활용을 선호하는 이유로 필요시 언제든지 가능하다(55.6%)는 것을 가장 높게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인력이 많다(20.3)는 것을 들고 있다. 그와 반대로 민간경비(기관)를 활용하는데 있어 불편한 점으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공권력이 없는 것을 24%가 들

고 있다.

민간경비(기관)활용의 선호와 비선호점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21> 민간경비의 선호와 비선호 이유

단위: 명(%)

문항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가능	전문인력 많음	전문장비 많음	기동성 뛰어남
민간경비의 선호 이유	104(55.6)	38(20.3)	9(4.8)	36(19.3)
문항	공권력 없음	돈이 많이 듦	신뢰가 안감	한계가 있음
민간경비 활용시 불편한 점	46(24.0)	92(47.9)	15(7.8)	39(20.3)

4.5 민간경비 이용에 대한 의사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경비를 이용하는데 대해 “고려해 볼 것이라는 응답”이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도 35.6%로 나타났다.

<표 22> 민간경비 이용 의사

단위: 명(%)

문항	적극 이용할 것임	고려해 볼 것임	이용하지 않을 것임
민간경비 이용에 대한 의사	68(35.6)	114(59.7)	9(4.7)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민간경비 이용 의사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적극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은 반면에, 30대·40대·50대·60대는 “고려해 보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23> 응답자 특성별 민간경비 이용 의사
단위: 명(%)

민간경비이용여부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적극이용	31(50.8)	16(37.2)	7(18.9)	11(30.6)	3(23.1)
고려해봄	30(49.2)	26(60.5)	27(73.0)	22(61.1)	8(61.5)
이용안함	0(0)	1(2.3)	3(8.1)	3(8.3)	2(15.4)
카이제곱검증	18.332**				

*p<0.1 **p<0.05 ***p<0.01

<표 25> 응답자 특성별 민간경비에 대한 평소의 인지
단위: 명(%)

민간경비에 대해 아는 정도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잘알	14(22.6)	4(9.8)	4(10.8)	3(8.3)	2(15.4)
대충알	31(50.0)	27(65.9)	13(35.1)	18(50.0)	1(7.7)
잘 모름	13(21.0)	7(17.1)	19(51.4)	12(33.3)	6(46.2)
전혀 모름	4(6.5)	3(7.3)	1(2.7)	3(8.3)	4(30.8)
카이제곱검증	34.147***				

*p<0.1 **p<0.05 ***p<0.01

4.6 평소 민간경비 인지수준

평소 민간경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14.2%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잘 모른다”는 응답도 30%로 나타났다.

<표 24> 민간경비에 대한 평소의 인지
단위: 명(%)

문항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름	전혀 모름
평소에 민간경비에 대해 인지하는 수준	27(14.2)	91(47.9)	57(30.0)	15(7.9)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민간경비에 대한 평소의 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30대·50대는 “대충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40대와 60대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4.7 아동성범죄 예방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

아동성범죄 예방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시민의식(29.2%)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 언론매체, 학교, 정부기관, 민간기관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아동성범죄 예방에 대한 본 성숙된 시민의식과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표 26> 아동성범죄 예방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
단위: 명(%)

문항	가정	학교	민간기관	정부기관	언론매체	시민의식
아동성범죄 예방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	42(21.9)	26(13.5)	8(4.2)	20(10.4)	40(20.8)	56(29.2)

아동성범죄 예방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거주지 별로 차이를 보인다.

통합 창원시와 기타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지만, 경남의 지역 거주자들은 언론매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27> 응답자 특성별 아동성범죄 예방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

단위: 명(%)

예방에 가장 큰 영향주는것	거주지		
	통합창원시	기타경남지역	경남외지역
가정	31(24.2)	9(18.4)	2(16.7)
학교	19(14.8)	5(10.2)	1(8.3)
민간기관	4(3.1)	4(8.2)	0(0)
정부기관	14(10.9)	5(10.2)	0(0)
언론매체	24(18.8)	8(16.3)	7(58.3)
시민의식	36(28.1)	18(36.7)	2(16.7)
카이제곱검증	16.046*		

*p<0.1 **p<0.05 ***p<0.01

4.8 아동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

아동성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곳으로 놀이터 주변(37.2%)을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31.9%가 학교근처를, 21.5%가 피해자집 근처를 들고 있다. 따라서 놀이터 주변과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 및 예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결혼여부별·직업별·거주지별로 차이가 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28> 아동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

단위: 명(%)

문항	학교근처	놀이터주변	피해자집근처	가해자집근처
아동성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곳	61(31.9)	71(37.2)	41(21.5)	18(9.4)

5. 결 론

아동성폭력은 놀이터 주변이 학교근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9.1%),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2%가 아동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동성범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예방장치의 부재(32.2%로)를 들고 있으며, 아동성범죄의 예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42.3%로서 높게 나타나 아동성범죄 예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동성범죄의 예방책으로는 부모의 관찰, 예방교육, 예방장치, 어린이 놀이터 개선, 전과자 재교육 등이 나타났으며, 부모의 관찰에서 중요한 사항은 자녀를 직접 동반하는 것이었다.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으로 학교에서의 예방교육(46.1%)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에서의 예방교육, 경찰기관에서의 예방교육, 민간단체에서의 예방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방을 위한 장치 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서 민간경비를 활용한 순찰(37.5%)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쿨존의 관리철저를 들고 있다.

아동지킴이 제도에 대해서는 60.9%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안내지킴이 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홍보 부족(50.6%)과 형식적인 제도(24.7%)임을 들고 있다. 예방장치로서 경찰기관에 대해 대체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처를 위한 대안으로 민간경비(기관)을 활용하는데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민간경비(기관)의 활용을 선호하는 이유로 필요시 언제든지 가능하다(55.6%)는 것을 가장 높게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인력이 많다(20.3)는 것을 들고 있었다. 또한 민간경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었다.

아동성범죄 예방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언론매체도 중요한 역할을 들었다. 따라서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과 언론,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무엇보다도 예방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 학교지킴이 제도, 학교보안관 제도, 스쿨 폴리스 제도 등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이 있어야 하고, 학교당국에서의 예방교육과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그리고 민간경비업체의 활용을 통한 안전장치 등이 다각적이며 다층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일시적이고 전시적 교육책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범죄의식과 정책의식을 유발하여 오히려 잠재적 범죄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학교, 시민단체, 민간전문업체 등이 참여하는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저 자 소 개]



공 배 완 (Bae-Wan Gong)

1989년 7월 파리국제정치대학 (학사)

1990년 7월 동대학원 (석사)

1993년 7월 프랑스NancyII대학 (박사)

email : gbw21c@yahoo.co.kr

참고문헌

- [1] 공배완, 민간경비론, 경남대출판부, 2011.
- [2] 공배완, 시큐리티사회환경론, 경남대출판부, 2009.
- [3] 김근홍, 한국의 사회문제, 도서출판양지, 2002.
- [4] 김영모,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9.
- [5] 안황권, “민간경비원과 경찰의 협력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 경호경비연구, 제10권, 2005.
- [6] 임준태,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
- [7]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
- [8]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2006.
- [9] Burstein Harvey. “Introduction to Security”, New Jersey: Prentice Hall, 1994.
- [10] Charles A. Sennewald. “Effective Security Management”, MA: Burlington, 2003.
- [11] Gion Green. “Introduction to Security”, Oxford: Liancre House, 2008.
- [12] Robert J. Fischer, “Introduction to Security”, Fourth Edition, 2008.
- [13] Trevor Jones, Tim Newburn. “Urban Change and Policing: Mass Private Property Re-considered”,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Volume 7, Number 2 pp.225-244, NY: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 [14] Philip P. Purpura, “Security and Loss Prevention”, Fourth Edition, 2003.